

국제유가, 2015년 135달러 상회

2010년에는 84-85달러 형성 ... 국제 원자재 가격 당분간 강세

원유를 비롯해 금, 은을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17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트레이드증권 주최 <2010년 원자재 시장전망 세미나>에서 바클레이즈캐피털의 임세훈 서울지점 이사는 “배럴당 75달러 이하는 원유 생산의 매력이 없다”며 “원유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 투기세력 가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2010년에는 84-85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원유 수요가 저조하겠지만 원유 생산국의 공급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며 “원유 가격 강세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2015년에는 135-137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런던금속거래소 회원사인 AMT의 마이클 T.리빙스 이사는 “금 ETF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각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헤지(Hedge) 수요까지 늘면서 금 가격 강세를 이끌고 있다”며 “2010년에 글로벌 실물경제가 뚜렷한 회복을 보이면 비철금속 시장이 실물경기와 맞물려 큰 변동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8>